

교육중심대학 발전방안 탐색¹⁾

강 회 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1. 문제의 제기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4차 교육개혁방안(교육개혁위원회a, 1997)에서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창조적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명문대학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대학사회에서는 연구중심대학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비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연구를 선도해 나갈 고급인력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매우 적으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세계 우수대학보다 열악하고, 기술개발력 및 연구 성과는 선진국 대학과 비교하여 매우 뒤떨어져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b, 1997: 40~47). 또한 우리 나라 대학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사 배출

에만 치중한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와 열악한 교육 연구 및 교육투자 수준, 그리고 세칭 일류대, 일류학과를 향한 소모적 대입경쟁으로 말미암아 제학문 분야의 인재를 균형있게 분배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a, 1997: 48).

이와 같은 전지에서 정부는 우리 나라 대학 중 소수의 대학을 선택하여 단기간 내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확정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대학사회에서 연구중심대학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선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연구중심대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교육중심대학²⁾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 그리

1) 이 글에서는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 및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현안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는 배제하고, 개념적 측면에 대한 논의만 하였다. 또한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글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의 적용 가능성, 적용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2) 필자는 연구중심대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교육중심대학이란 연구보다는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을, 대학원보다는 학부가 중심이 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연구중심대학이란 바로 대학원중심대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이념과 기능은 교육과 연구 중심에서 교육, 연구 및 사회 봉사 중심으로, 엘리트(Top Leader) 육성에서 전문가(Leader)의 육성으로 변모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업적주의사회(Meritocratic Society), 전문가사회(Expert Society), 그리고 민주주의사회(Democratic Society)로 표방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수 정예의 연구인력 육성만으로는 대학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구중심대학을 뒷받침하고 연구중심대학과 상호연계성을 갖는 교육중심대학을 강화해야만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과의 상호 연계성을 탐색하고 교육중심대학의 발전모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그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중심대학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거론된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논의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개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교육중심, 연구중심 및 지방거점대학의 관계

연구중심대학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문용린(1998)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학들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선의의 자유경쟁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현행의 대학서열체제에 부합하도록 대학의 기능을 분화하고 안배하겠다는 취지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의 연구중심대학을 “대학조직과 운영이 학부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 중점을 둔 대학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한편 공공재원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하는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b, 1997: 48). 이와 같은 연구중심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에, 강의보다는 연구를, 자율성을 보장받되 국가예산 부분에 대한 책임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의미한다(교육개혁위원회b, 1997: 48).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이란 대학원중심대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과 관련된 개념 중 하나는 지방거점대학이다. 이 개념은 과열된 대학입시경쟁에 따른 인재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말미암아 세칭 일류대학, 일류학과에만 인재가 배분되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으로 인재가 편중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인재의 고른 배분을 목표로 등장한 개념이다. 즉, 학사과정은 인근 거주지역에서 이수하고, 대학원 과정은 전국 단위에서 특성화된 대학원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등교육 진로모형’을 말한다(교육개혁위원회a, 1997: 25). 물론, 이때 특성화된 대학원은 전국단위 수준의 대학원으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특성화, 전문화된 대학원을 의미한다(교육개혁위원회a, 1997: 24~2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거점대학이란 연구중심대학의 성격을 갖되 지역별로 특정 학문영역이 전문화된 대학원을 갖는 대학이라 볼 수 있다. 즉, 교육개혁위원회가 말하는 지방거점대학은 특정 학문영역에서만 전문화된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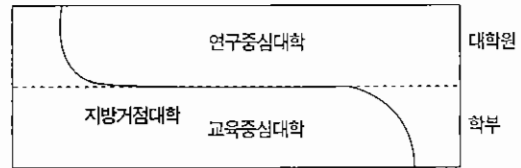
그러나 이 지방거점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교육개혁위원회가 말하는 연구중심대학의 특징은, 우리 나라 대학 중 최상위 서열에 있는 소수의 대학, 연구와 개발 중심, 연구인력 양성의 주축인 대학원 교육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대학들을 들고 있는 데 비해, 지방거점대학은 인재양성과 배분의 지방중심체제 구축, 인근 지역의 우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 학부과정 육성, 그리고 특성화-전문화된 대학원, 대학간 교육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

방거점대학은 특정 학문 분야만 육성된 대학원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 중심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거점대학은 일부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을 가지면서 학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중심대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개혁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 교육중심대학(학부중심의 대학)이다. 우리 나라 4년제 대학은 1999년 2월 현재 187개교이다. 이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열 중심의 연구중심대학과 지방거점대학으로 선택되는 대학의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이나 지방거점대학이 아닌 학부학생의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중심의 대학으로 기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 통상적으로 훌륭한 대학원 교육이란 훌륭한 학부교육을 때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학부중심대학은 있어도 대학원중심대학은 없다"라는 재미학자(교수신문, 1998. 6. 1일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학부교육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생각하는 연구중심대학(결국, 대학원중심대학)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육 개혁에서 교육중심대학을 제외한 논의는 또 다른 대학교육의 기형적 체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에는 교육중심대학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거점대학이라는 독특한 체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3대 기능이라 불리는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은 전체 대학체제 차원에서 모든 단일 대학 체제에서 모든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즉, 연구 없는 교육을 생각하기 어렵고, 대학에 축적된 지식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학에만 인위적으로 연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단위대학별로 기능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대학의 기능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 세 개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자료는 드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회 정책포럼 내용: 한겨레신문, '98. 9. 3)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연구중심대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대학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개 유형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 이 세 유형의 관계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립하여 보았다.



<그림 1>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및 지방거점대학

<그림 1>에서 보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의 규모가 매우 적은 대학원중심의 연구 기능이 강조된 유형의 대학이다. 반면에 교육중심대학은 대학원 규모가 매우 적고 학부의 규모가 매우 큰 교육기능이 강조된 유형의 대학으로 이 경우 대학원은 해당대학의 특성화된 영역(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중심)으로만 구성될 것이다. 지방거점대학은 특성화된 일부 영역이 대학원중심으로 그리고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학부로 구성된 2원적 기능을 갖는 대학유형이다. 이러한 관계 설정은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대학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이상한 체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교육개혁 추진 방향이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 나라 대학교육은 단일대학보다는 전체대학을 단일의 대학이라고 보아 연구중심대학이 갖지 못하는 교육의 기능을 교육중심대학과 지방거점대학이 지원해주고, 연구중심대학에서 산출된 연구결과는 교육중심대

학과 지방거점대학에 적극 보급 확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간 교류·협동이 활발하여, 세 유형의 대학간에 학생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하며 대학유형간 교수교류가 활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4년제 대학교육이 이원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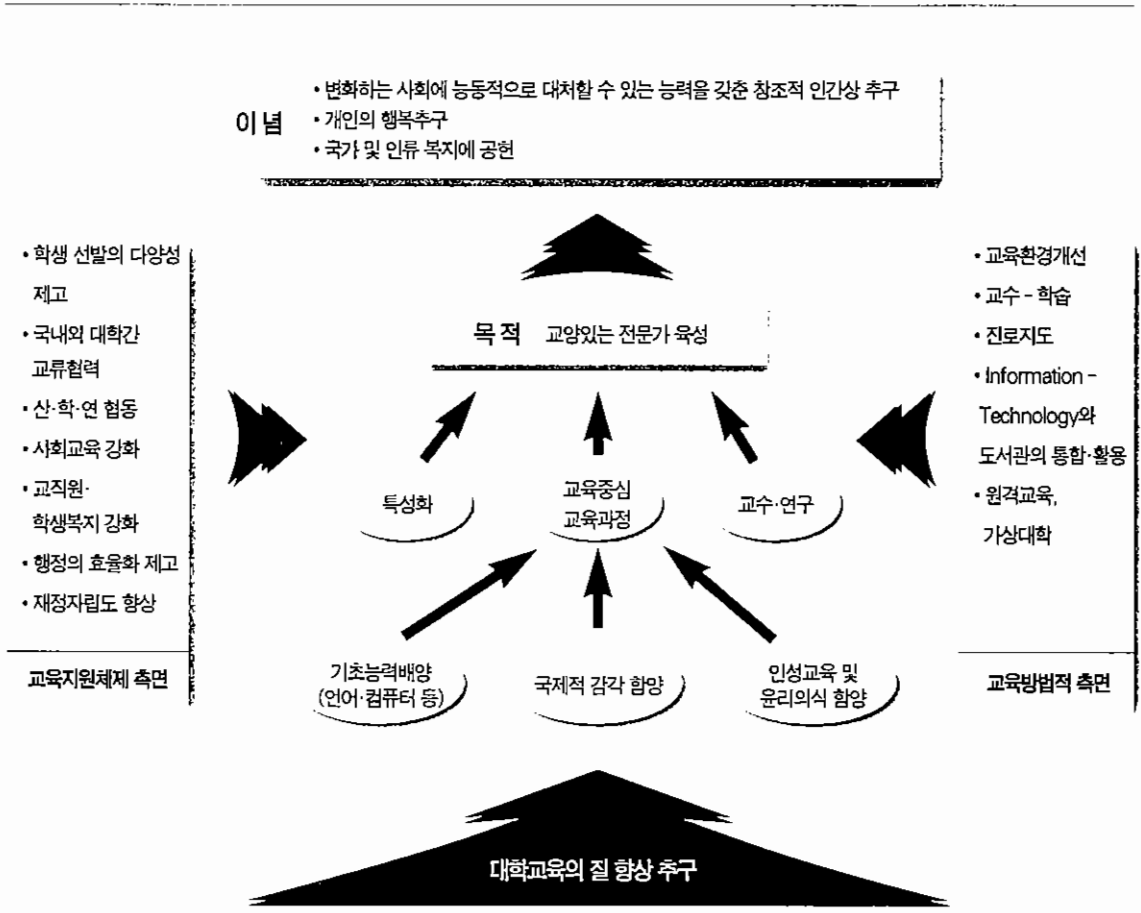
3. 교육중심대학의 발전모형

앞으로 대학교육개혁의 성공은 대학유형별로 갖게 되는 특정기능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달려 있게 되어,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완전히 통합된 단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논란으로 떠오르게 된다. 현실적으로 187개 대학이 이러한 단일체제를 완벽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대학유형간 종속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중심대학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보편화 그리고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수요증대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 교육중심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수요증대와 사회변화는 대학의 이념이나 기능을 엘리트 양성에서 전문가의 육성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즉, 과거 엘리트형 대학에서 소수의 최고 지도자(Top Leader)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 목표이었으나, 현재 보편형·대중형 대학에서는 다수의 전문가(Leader) 양성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또한, 현대 사회가 귀속사회가 아닌 성취 사회인 이상 그 사회는 능력에 바탕을 둔 전문가로 충원되어야 하고, 전문가로 충원되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상황은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대학이 학문의 전당, 상아탑으로서의 지위를 고집할 수만은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의 분배기능이 다변화되어, 대학에서의 현장감 있는 충실한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되게 되었다. 즉, 과거의 대학은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공급 과잉 현상으로 말미암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진로지도와 실용지향적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없이도 대학이 유지되었고, 학생 역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신이 알아서 직업을 선택하며, 그 결과 역시도 학생 스스로가 책임지는 일방향적 교육체제 속에서 대학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보편주의가 도래하면서 학생의 요구가 강조되는 학생소비자 중심의 대학교육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직업구조의 변화와 직무수행능력의 심화가 가속화되면서, 직업세계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론 중심의 학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직업세계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부여받은 직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실용적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의 요구와 실질적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요청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게 된다(정우현, 구병림, 강희돈 외, 1998).

그 동안 우리 나라 대학이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었고 직업의 본질적 부분인 노동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실용지향적인 교육을 중국교육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실용지향적 교육을 부적절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란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성을 발휘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생활에 공헌을 한다(정우현, 1987). 또한 직업 역할의 수행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게 되며, 수입을 통해 각 개인의 심리적 만족이나 복지 및 태도가 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과 관련지워진다(강희돈, 1989).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그림 2〉 교육중심대학의 발전모형을 위한 개념적 틀

실용지향적 교육은 더 이상 학문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 교육중심대학은 실용중심교육(특히, 직업교육 중시), 고객중심교육 및 결과중심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화하면,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는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한다는 이념하에 교양 있는 전문가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기본적 틀에 따라 필요한 요소들을 배열하여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

는 교육중심대학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 그림이다. 물론, 〈그림 2〉가 우리 나라 교육중심대학에 완전히 적합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대학이 처해있는 현실과 앞으로 고등교육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인다.

4. 결 론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 그 개혁은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 같다. 만약 이와 같은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었을 때,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대학교육 체제는 한 대학

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능을 주로 지향하느냐보다는, 서로 다른 대학의 기능을 갖는 특정대학이 서로 합쳐져 대학의 3대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이다. 즉, 여러 대학을 함께 묶어야만 제대로 된 하나의 대학이 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모든 대학들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순히 대학에서 교육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새로운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이제껏 우리 대학들이 간과해왔던 요소를 적절히 배열하면서 교육중심대학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우리 나라 대학이 간과해왔던 요소들을 강조한 것으로,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든 우리 나라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보여진다.

학생을 선발하여 아무런 교육적 처치(treatment)를 가하지 않고 신입생의 우수한 성적에 힘입어 일류대학을 지향하기보다는 “평범한 학생을 선발하여, 못하는 학생을 잘하는 인재로, 잘하는 학생은 더욱 잘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국가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평범한 대학교육의 이념과 역할의 실천을 교육중심대학의 발전 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강희돈(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신문. 1998. 6. 1일자.
 교육개혁위원회(1997a).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
 교육개혁위원회(1997b).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설명자료).”

김안중(1995). “왜 ‘대학원중심대학’인가?”, 『대학교육』(11-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1995).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의 내용과 방향”, 『대학교육』(11-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홍렬(1995). “대학원중심대학, 그 문제에 대한 소견”, 『대학교육』(11-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1998. 9. 11). “서울대학교 학사조직 개편 및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신의순(1995). “대학원중심대학 운영과 학문의 균형발전”, 『대학교육』(11-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창(1995). “대학원중심대학의 과제와 재정확보방안”, 『대학교육』(11-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경순. “현대사회와 과학”, 포항공대 홈페이지(www.postech.ac.kr/press/mss/).
 정우현(1987). “직업의 개념과 직업교육의 과제”, 『공업기술교육』. 46.
 정우현, 구병림, 강희돈, 정철영, 김호동, 김선희(199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발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겨레신문. 1998. 9. 3일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9. 22). “연구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제1회 대학교육정책포럼).
 홍성태(1998). “세계 수준 대학원중심대학을 향한 서울대 발전계획”, 『대학교육』(1~2월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희돈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고려대외 한국외국어대 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한국사회와 교육갈등』, 『교육사회학 연구』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교육의 자격증 효과”, “사회이동 과정과 학교교육 역할의 다양성” 외 다수를 발표했다.